

완주군 아파트 세대수 급증

지난해말 1만 5600여 세대로 38.3% 기록 올해 5개 아파트 1640세대 분양·추진중

완주군의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비중이 빠르면 올 연말 즈음이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완주군은 지난해말 아파트 총 세대수는 1만5634세대로, 전체 세대수(4만750세대)의 38.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말의 1만 3958세대에 비해 1676세대, 12.0% 증가한 것이다.

아파트는 분양 1만159세대, 임대 5475세대다.

완주군의 아파트 세대수 및 비중은 지난 2005년 7891세대, 29.5%를 기록했으나, 혁신도시 조성을 필두로 민간 건설 아파트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년 사이 98.1% 증가했다.

이같은 아파트 세대수 증가는 현재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진행 중에 있어, 올 연말경에는 그 비중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봉동읍 제내리의 제일 오뚜그라데 526세대, 봉동을 나평리의 광신 프로그레스 400세대, 고산면 읍내리의 동우리치 119세대 등 1,045세대가 분양 중에 있다.

또한 삼례읍 삼례리 248세대와 봉동을 신성리의 완주경찰서 인근에 34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들 민간 아파트의 총

세대(1,640세대)를 고려하면, 완주군의 아파트 세대비중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앞으로 삼봉신도시(5211세대), 미니복합타운(3000세대), 이서는 교지구(892세대), 봉동 은하지구(73세대) 등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는 만큼, 주민의 주거형태의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노동복합 도시답게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의 주거 형태가 도시화로 진행되는 만큼,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15만 자족도시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무주 반딧불축제 보러오세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맨 투 맨 홍보가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정위원회(위원장 이성만)는 16일 축제개요 및 일정, 주요 프로그램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9일까지는 대전지역을 포함한 김천시와 진안군, 장수군, 영동군, 금산군 등 인접 시군과 서울시 중구를 비롯한 지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등 총 29개 지역을 찾아 현장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서별 홍보반을 편성했으며, 주요 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반딧불축제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게시·비치하고, 터미널과 휴게소, 시장, 주요 관광지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 이종



현 홍보팀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올

군, 전국 지자체 직접 찾아 포스터 부착·홍보물 배포

해로 20회를 맞는다”며 “성년이 되는 만큼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뛰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무주를 예천문화관과 남대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딧불이 주재관, △엄마 아빠와 1박 2일 생태탐험 등 주제 프로그램을 비롯해 △나하놀이와 썰매 타기 등 전통놀이, △14개 마을과 함께 하는 마을로 가는 ‘가을’ 축제, △반딧불축제 20년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반딧불축제의 발자취, △삼캐라 가수 임태경이 함께 하는 20년 성년례 주제 공연_무주아리랑 등이 준비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마이산사과영농조합-대전중앙청과 업무협약 체결

농가 소득 증대 기대

진안마이산사과영농조합(대표 원종삼)과 대전중앙청과(주)대표 송미나)는 16일 진안사과 판매 확대와 수요 창출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안지역의 농특산물을 거래를 통해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진안사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산지의 우수한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판매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유통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양해각서를 통해 대전중앙청과(주)는 진안마이산사과영농조합에 포장재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고, 진안마이산사과영농조합은 생산되는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술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진안마이산사과영농조합은 현재 170여 농가가 참여하고 200ha의 재배면적으로, 연 100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진안지역 모든 사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교육, 기술지원, 관리 등 철



진안마이산사과영농조합과 대전중앙청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한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진안마이산사과영농조합은 ‘마이골 홍삼사과’라는 브랜드를 상표등록해 놓고, 2017년부터 홍삼을 이용한 홍삼 액비를 시비하여 병충해 예방 및 고 품질의 사과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주)는 1993년 설립하여 대전지역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60억의 매출을 올렸다.

송미나 대표는 “출하의 기쁨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산물유통환경의 급변과 수입농산물의 범람, FTA로 농민은 물론 소비자까지도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종삼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진안사과를 대전중앙청과를 통해 유통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더욱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조합원의 소득증대는 물론 더 좋은 사과 생산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부귀면, 응치전 순국선열 추모제 거행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응치전 순국선열 추모제가 지난 13일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신덕마을 참열사에서 이근상 부군수,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이진호 7733부대 제1대대장, 각 기관단체장, (사)임란유적지적지 보존회원, 관련 후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초헌관에 이근상 부군수, 아헌관에 박병석 의장, 종헌관에 이진호 7733부대 제1대대장이 분정 받아 추모제를 봉행했다.

응치전은 지금으로부터 424년 전(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로 침투해 오던 수천의 왜적을 맞아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鎭戡(응치) 지금의 부귀면 세동리 신덕마을에서 대승을 거둔 전투이다.

호남의 곡창을 유린하려던 왜적을 방어함으로써 나라를 구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였고 이때 가장 선두에서 싸웠던 수많은 애국지와 의병들이 이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이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매년 양력 8월 13일을 추모일로 정하고 호남을 온전히 지켜낸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있으며, 올해도 전통을 받들어 임란유적지적지 보존회에서 그날의 의로운 정신을 역사에 되살리는 추모제를 지내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기프트하우스 선정

재난 위기기정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제공

진안군은 올해 4월 재난위기가정으로 추천한 가구가 전국 30가 구 추천자 중 최종 4개 시·군(진안, 포천, 청송, 장흥) 6개 가구에 포함되어 기프트하우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혜가구는 성수면 서도(61, 여)씨로 해당주택은 재래식 단독가구로 슬레이트지붕 옹마루에 누수가 있고, 가옥 우측 벽면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좌측도 하중 지지가 어려워 벽면이 휘어져 있는 등 심각한 재난 위기상태에 노출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기프트하우스 사업은 1961년 설립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2015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의 후원을 받아 재난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21㎡규모 33백만원 상당의 조립식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선정과정에서 박우석 성수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철거, 기초작업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동모금회, 희망복지지원단 사업비 등을 연계 추진하였고 재능기부(명한건설, 담쟁이건축 등)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재난위기가정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재해구호협회와 진안군은 지난 11일 최종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진행하였고, 9월 말경 주택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에 따라 사전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구호협회에서는 입주기념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민들 남대천 살린다

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군지부, 정화활동 펼쳐

무주군은 16일 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이 주최하고 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무주군지부(지부장 한용희)가 주관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대비 그린스타트 남대천 환경정화운동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대천 정화를 통해 자연보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손길맞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 관계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무주의 젖줄 남대천을 깨끗이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쓰레기를 줍는 작은 움직임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보호에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큰 여운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수 군수는 “오늘 우리가 떼는 한 걸음이 무주의 빛 반딧불이를 숨쉬게 하는 원동력이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을 북돋우는 기운”이라며 “깨끗해진 남대천이 주민들 삶까지 더욱 쾌적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무주군 지부는 “깨끗한 무주 청정 무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범국민 실천운동을)를 통해 남대천 환경정화 전개와 가정방문 대기질측정 측정, 탄소포인트 가입활동,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등 녹색생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총력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 장수119 안전센터(센터장 한동규)와 장수남성 의용소방대(대장 백영귀)는 16일 오전 11시 장수시장 등 장수군 일대에서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무진장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2012년 2월 5일에 시행된 법률로 신·개축 주택 등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 지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의무설치하도록 돼있다. 기초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불을 끌 수 있는 장비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비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장수군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6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통계청 승인 통계조사로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와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 생산과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여 왔으며 올해는 전북대학교를 책임 대학으로 표본가구 가구일 중 만 19세 이상(1997년7월31일 이전 출생자)의 사전 선점대 통지된 가구의 가구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1:1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난 12일 방화동가축유기촌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군청 공무원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장수군지부와 회원 등 20여명은 방화동가축유기촌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 협조와 부당상행위 시 부당요금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휴가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및 홈페이지 물가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전국 춤 경연대회 열려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2016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올해는 청소년들의 춤 경연으로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춤 경연대회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제의 마지막 날인 9월25일 다양한 장르의 춤을 통해 완주군을 표현하는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이 주최하고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문무용, 현대무용, 발레, 방스댄스, 비보이 등 모든 장르의 춤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열정상 3명에게 상금과 상장을 시상한다.

참가신청은 9월 10일까지이며, 12월 1차 서류심사(참가신청서, 영상, 활동자료)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작품 구성에 완주군의 이미지를 춤으로 표현해야 한다.

참가 대상은 초·중·고·대학생(만 9~24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및 동아리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 인삼·홍삼 U-ICT 융복합사업 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16일 농가 및 유관기관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 인삼·홍삼 무인방제 및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군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군 관계자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인삼재배농가와 품질인증업체, 홍삼연구소, 클러스터사업단, 인삼협회 직원이 참여하여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인삼무인방제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인삼 ICT 무인방제시스템과 진안홍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며 총 사업비 7억6,000만원 중 예치비 3억4,000만원, 군비 3억4,500만원과 자부담 1억1,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안천 다문화 가정 요리교실

진안군 안천면(면장 유철호) 주민자치회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주부 7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다문화 가정 요리교실’을 마련했다.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은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요리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문화가정의 화목을 위해 개설됐으며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등 찌개류, 김치와 찜치조림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말반찬류, 명절 때 필요한 전 불이, 자녀들의 간식 만들기, 야외활동 시 필요한 김밥 말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요리교실 강사는 마을 부녀회장님의 재능기부로 실시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